

完璧じゃなくても大丈夫

久木田 桃子

私は高校生のころ、何事も完璧にやらなければ気が済まない性格だった。計画が少しでも崩れると「もうダメだ」と感じてしまうほどだった。高校3年の夏までは、医学部を目指して、毎日勉強に打ち込んでいた。しかし、模試の結果はいつもE判定で、どれだけ努力しても結果が出ず、完璧を求めるほど自分を追い詰めていた。どれだけ勉強しても、「まだ足りない」「もっとできるはず」と自分を追い込み、努力しているはずなのに“努力が足りない”と思い込んでいた。誰よりも頑張っているのに、自分だけ遅れている気がして苦しかった。

受験校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母とたくさん話をした。母は「頑張らなくてもいいから、あなたが笑っていられるところに行きなさい。」と言ってくれた。その言葉に少しずつ心が軽くなり、私は教育学部に進むことを決めた。最初は正直、不安のほうが大きかった。「医者を諦めるなんて」と思う自分もいて、決断するまでに何度も迷った。それでも、母の言葉を信じて一步踏み出してみようと思った。

教育学部を志望してから、模試ではずっとA判定を取っていた。ようやく努力が形になった気がして、自身をもてるようになった。そして、共通テスト直前まで気を抜かずに勉強を続けた。ところが、本番の結果はまさかのE判定だった。いつもの点数より、約200点も低く、信じられなかった。どうしてこんな点数になったのかも分からず、1週間ほど何も手につかなかった。「もう諦めよう」と思った瞬間もたくさんあった。

でも、家族と話すうちに、「結果がどうであっても、今の自分にできることをやってみよう」と思えるようになった。残り5週間は苦手な数学を中心に、できることを一つずつ積み重ねた。完璧にはほど遠い日々だったが、「今できること」を大切にした。

そしてあつという間に合格発表の日が来た。正直期待はしていなかったが、結果を見るのはとても怖かった。画面に映る受験番号を追っていき、自分の受験番号を見つけた瞬間は、今でも鮮明に覚えている。泣いて喜ぶ家族の姿を見て、これまでの努力が報われたように感じた。

この経験を通して、気がついたことがある。完璧を目指すことが必ずしも成功につなが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思い通りにならなくても、今の自分にできることを繰り返せば、きっと道は開けるということ。そして、失敗や遠回りも、自分の成長や気づきに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だ。

この経験は、私にとって大きな自信であり、人生の財産になった。

完璧じゃなくても大丈夫。少しずつでも、自分を信じて前へ進めば、未来は必ず変わるはず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구키타 모모코

나는 고등학생 때,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해야 마음이 편한 성격이었다. 계획이 조금만 틀어져도 “이제 끝이야”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때까지는 나는 의과대학을 목표로 매일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모의고사 결과는 항상 E 등급이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완벽을 추구할수록 점점 내 자신을 힘들게 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직 멀었어’ ‘더 잘할 수 있어’라고 내 자신을 몰아붙이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노력이 부족해’라고 생각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만 늦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

대학교를 정해야 할 때, 어머니와 많이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열심히 안 해도 괜찮아. 네가 웃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고, 나는 교육학부에 가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더 컸다. ‘의사의 꿈을 포기한다니’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어서 결심하기까지는 몇 번이나 고민했다. 그래도 어머니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고 나아가 보려고 했다.

교육학부를 목표로 한 후에는 모의고사에서 계속 A 등급을 받았다. 노력의 결과가 드디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대학 공통시험 직전까지 열심히 공부했다. 하지만 본시험 결과는 믿을 수 없게도 E 등급이었다. 평소보다 200점이나 낮게 나와서 정말 믿기 어려웠다.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도 모르는채, 일주일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이제 포기하자”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

하지만 가족과 이야기하는 동안, “결과가 어떻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남아 있는 5주일은 특히 어려운 수학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 나갔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했다.

그리고 어느새 합격 발표날이 다가왔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보는 것이 정말 무서웠다. 컴퓨터 화면에 나온 수험번호를 하나씩 따라가다가, 내 수험번호를 찾은 순간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너무 기뻐서 울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았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면 언젠가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실패나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도 나의 성장과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 경험은 나에게 큰 자신감이 되었고, 인생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씩이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미래는 꼭 바뀔 것이다.